



1,980pt 수준의 저항이 중요한 이유

Why This Report

KOSPI가 1,980pt 수준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이내 하락해 60일 이평선을 하회했습니다. 이대로 낙폭을 확대하면 4월 초에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한 후에 반등하면서 다시 동 이평선의 저항을 확인하는 이탈 안착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60일 이평선을 회복하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60일 이평선 회복 여부에 따른 운용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OSPI, 60일 이평선 회복 여부에 따른 주가 흐름

- 지난 4월 초에 60일 이평선 이탈 후 낙폭 확대, 이후 반등 과정에서 60일 이평선에 도달한 상황. 60일 이평선 회복에 실패하면 이탈에 대한 안착 확인 과정 거치는 것으로 이후 주가 흐름은 부진한 모습 보일 전망
- 만약 60일 이평선 회복에 성공하면 강한 반등 국면이 전개되어 이전 고점대인 2,030pt 수준까지 쉽게 상승할 수 있음. 이 경우 장기 박스권 돌파하는 상승 추세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 열림.

주요 글로벌 증시도 저항에 걸린 모습

- 전주말 미국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지만 일봉상 채널 상단선의 저항에 걸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 타진할 수 있는 상황. 다만 추세가 안정적으로 단기 조정 이후 다시 상승 시도가 이어질 전망
- 전주말 독일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형성했지만 2007년 고점대의 저항에 도달했고, 확산형 삼각형 패턴으로 진행되어 반전형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주요 업종별 흐름의 시사점

-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이전 고점대의 저항으로 하락했지만 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고, 일봉상 삼각형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어 조만간 단기 상승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 존재
- KOSPI가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상승한다면 전기전자 업종지수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 우위. 화학, 운송장비 업종지수는 장기 이평선이 하락 중이고, 반등 과정에서 중요한 저항에 걸려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

60일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 1,980pt 에 위치한 하락 추세선 돌파 시 60일 이평선 회복 확인, 이 경우 2,030pt 까지 단기간 상승 가능
- 2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면 60일 이평선 회복 실패로 보고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 필요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 60일 이평선 회복 여부에 따른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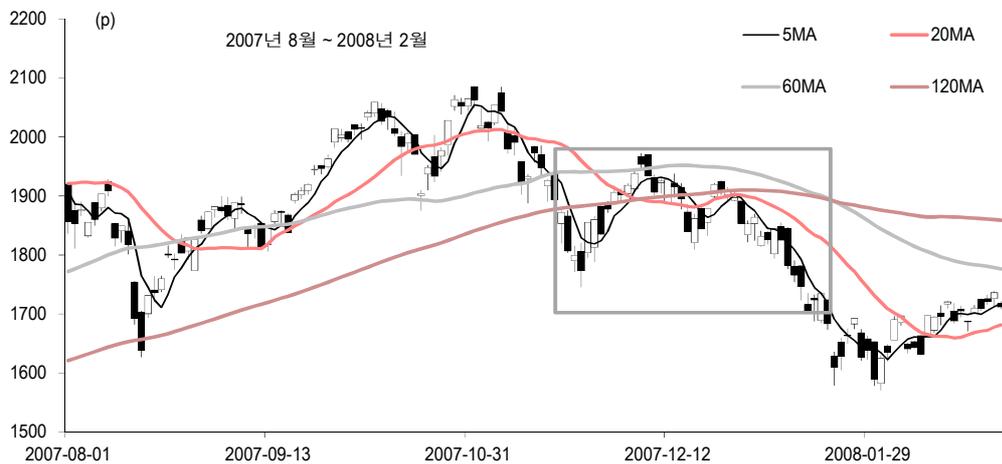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가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마감되었다. 개장 초 전주말 미국과 유럽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60일 이평선을 꺾으로 돌파한 후에 초반 추가 상승했지만 3월 고점대에서 그
은 하락 추세선과 작년 11월 저점대와 올해 3월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위치한 가격대에서 상
승 폭이 제한되고, 장 중 내내 낙폭을 확대해 갭구간을 메우고 소폭 하락 마감되었다. 올해 들어
KOSPI가 6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횡보 장으로 전개되다가 4월 하락 시 2월 저점대
를 이탈했고, 그 만큼 60일 이평선 이탈 폭도 크게 나타났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전일 60일 이평선 회복 실패가 결국 60일 이평선 이탈에 대한 안착 확인으로 이어질 지의
여부이다.

KOSPI 일봉, 60일 이평선 이탈 확인 후 나타나는 모습(20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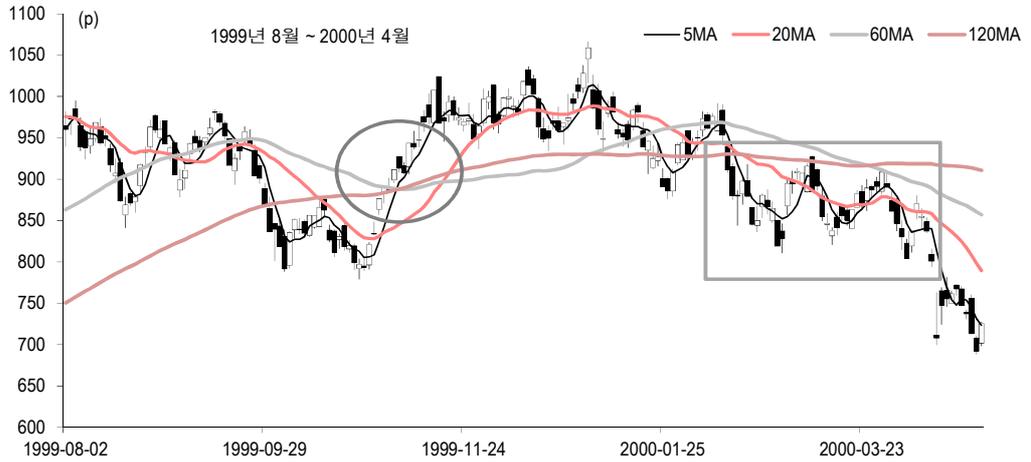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일반적으로 60일 이평선은 이탈 자체로 하락추세로 전개되기 보다는 이탈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이후에 반등하면서 60일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본격 하락국면으로 진
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말에 나타난 위의 그림과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전일 60일
이평선 회복 실패가 결국 60일 이평선 이탈에 대한 안착 확인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직 5일 이평선과 단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아 60일 이평선 회복
시도가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60일 이평선 회복에 계속 실패하고, 20일 이평선까지 하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1차로 이전 저점대인 1,890pt 까지 조정에 대비하고 이후에도 단기 고
점을 낮춘다면 하락 추세 전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면 추가 조정 폭이 제한되면서 60일 이평선 회복에 성공하면 이전 고점대인 2,030pt 수준까
지 상승 가능성이 열리고, 이후에도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상승 추세로 복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일 고점대 회복
여부라고 판단된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 일봉, 60일 이평선 이탈 후 회복하는 경우와 회복에 실패하는 경우의 주가 흐름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도 저항에 걸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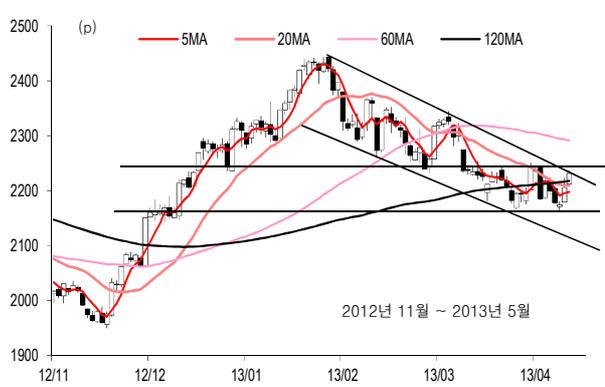
전주말 미국과 유럽증시가 강세를 보여 개장 초 KOSPI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 해외 주요 지수 역시 일정한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으로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미국 S&P500지수는 전주말 상승으로 채널 상단선의 저항에 도달해 단기적인 상승 가능 폭은 제한적이다. 물론 20, 60일 이평선이 나란하게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해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저항은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 중국 상해지수 역시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바닥권을 형성 중이지만 하락 추세선과 박스권 상단선의 저항에 도달해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 모습이다.

S&P500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상해 종합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한편 전주말에 강한 상승세를 형성한 독일 DAX30 지수의 경우 2007년 고점대의 저항으로 인한 조정 압력이 예상된다. 특히 독일 DAX 30지수는 올해 들어 변동폭이 확대되는 확산형 삼각형 패턴을 형성했는데, 이는 중장기 고점대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4월 말부터 나타난 강한 상승은 반드시 좋은 모습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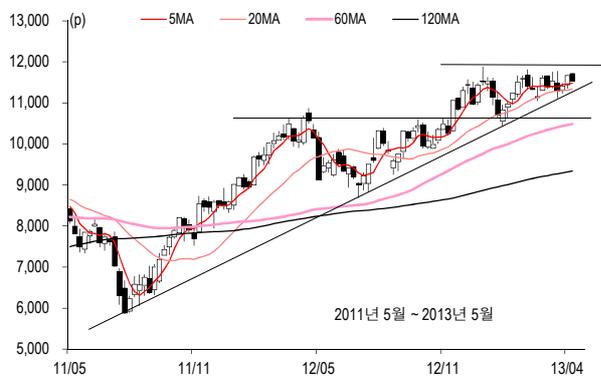
독일 DAX30 주봉, 2007년 고점대의 저항 도달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업종별 흐름의 시사점

전기전자 업종지수 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전기전자 업종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대부분 업종지수도 일정한 저항에 걸린 모습으로 전일 상승 폭이 제한된 것은 그다지 이상한 모습은 아니라 판단된다. 다만 업종별로 저항의 강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전기전자업종지수는 단기 고점대의 저항에 걸렸지만 2011년 8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올해 초 이후 사실상 횡보 국면이 진행되면서 삼각형 패턴으로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삼각형 패턴 꼭지점에 근접했고, 60일 이평선이 지지대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만약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레벨업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KOSPI 는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전 고점대인 2,030pt 수준까지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추세가 형성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면 결국 조정이 장기화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KOSPI 의 60일 이평선 회복의 실패로 귀결될 전망이다.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운송장비, 화학업종 등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한 업종지수는 이탈된 이전 저점대 등의 저항에 걸린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장기 이평선들도 저항이 되고 있어 쉽게 이들 저항을 돌파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다만 추가 상승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4월 저점대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장기 이평선 방향 전환을 위한 등락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결국 현재 수준에서 소재, 산업재 관련주들은 중립적 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 시장이 본격 상승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IT 관련주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세를 형성하는 쪽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투자전략 : 60일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에 따라 시장 흐름 추적

KOSPI가 60일 이평선을 넘지 못해 경계감이 부각된 상황이다. 아직 단기 이평선과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아 60일 이평선 회복에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패가 확인되면 기간 조정이 길어지거나 가격 조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60일 이평선을 회복하면 이전 고점대인 2,030pt 수준까지 쉽게 상승하고, 그 이상의 상승 추세로도 전개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3월 고점대까지 상승하고 조정 받는 과정에서 60일 이평선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승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주말 미국과 유럽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미국증시는 채널 상단선의 저항에 걸린 모습이고, 독일 증시는 2007년 고점대의 저항에 도달한 모습이다. 미국시장의 경우 추세가 안정적 이므로 단기적으로 조정 반더라도 다시 상승세로 진행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 운송장비 등 소재, 산업재 관련 업종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지만 중요한 저항에 도달해 단기 상승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상승추세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다만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주봉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면서 연초부터 형성된 삼각형 수렴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모습이라 판단된다. 만약 IT 업종지수가 추세를 형성하면 KOSPI 는 60일 이평선을 넘어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6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주봉상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소재, 산업재 업종에 관련해서는 바닥 다지기 과정에서의 등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